▪ 교회소식 ▪

1. 환경선교주일 : 이번 주일은 환경선교주일입니다.
2.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3.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2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결혼 : 김민정 씨(김준호·곽혜자 권사 딸)와 장윤재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6일(토) 낮 12시 청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이번 주 수요일은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참여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막 4:26~34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신진식	김정훈

6월				
	1부 영접위원	곽권희	헌금위원	이선영
	2부 영접위원	하현철 박재영 한상균 이현정 정연희 한상경		
	2부 헌금위원	박범희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김성순 윤영미 김향자 배이화 김해순 이재우 장동훈 권혁래		
다음주식당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준민 이경준 김정우		
오늘설거지봉사	청파1속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5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재영

2018-23 6월 10일

110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9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3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지구 생태계의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간의 거대한 욕망과 무분별한 소비가 지구를 이토록 병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폭력적인 인간중심주의를 벗어 버리고, 생태계를 돌보며, 감탄하고, 성찰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6·13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평화의 새싹이 다시 움트기 시작한 이 땅에 그 가치를 깨닫고 돌보는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한반도에서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이 전쟁과 테러로 세계 도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롬8:1-2 ····· 인도자

▲ 교 독 문 ····· 73. 이사야 65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장영숙 전도사

2부응 답 송 ····· 찬양대

2부찬 양 ····· 516.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 함께

▲ 성경봉독 ····· 마 8:23-27 ····· I. 인도자
II. 김현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I. 주님의 선물 ····· 마중물 찬양대
II. 부흥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대정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김광일 이부용 김나름 김명숙 김문주 김성순
김수진 김영순 김윤수 박상호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종성 김종철
고영애 김주영 김지현 김중수 이순정 김지훈 김해선 김혜영 김홍수 남명진
김애정 남선옥 문병욱 문복순 박기영 박노수 남인자 박민아 박상규 신연화
박상욱 임서영 박시내 박인혁 고숙이 박재우 정충원 박준민 최광희 박지혜
배삼순 백묘현 서이순 서정순 송남필 신문희 심해성 안미순 안성호 김희숙
안정숙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윤영미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봉옥 이부곤 이수연 이순용 김신실 이우엘 이유선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재우 배이화 이정은 이지하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이행진
이현죽 임찬양 장동훈 정은선 전성호 전찬익 이은자 정두리 정성훈 정연희
정재기 정종삼 주은경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최 숙 최욱진 최윤화 최 현
최형주 허호범 박성실 홍순구 안홍숙 홍윤선 홍춘숙 무명1

감사헌금

강혜린 권정이 김반야 김진혁 신다현 김태정 문복순 박다니엘 박재영 이현정
박진주 배삼순 백성래 오미자 우윤석 윤선호 임선아 이광재 이상도 이재삼
전정현 이현순 임은영 임종수 장현희 정학성 김현숙 채일석
손미자(아버지 장례) 전현선(결혼) 홍순구 안홍숙(딸 결혼)

생일감사헌금

송남필

녹색꿈헌금

김영호 김향자 이행진 전 융 권정희 전나무 정효진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달빛 - 농사일지 13

- 고재종

반쯤 산그늘에 가려 항상 쭉정이 절반인 산답 닷마지기
다랭이 다랭이 쟁기로 갈아 모내기를 마쳤소 누님

몸져 고단한 저녁 잠시 논두렁에 나앉으니
망종 지난 달빛 어느새 푸르러 심아놓은 어린 모들
지극히 몸 틀어 뿌리잡는 모습 훤하고
사방에선 개굴개굴 뒷산에선 밤뻐꾸기 울어
어머니 끙끙 돌아앉는 소리가 온 들에 가득 퍼집니다

저 못난 논배미 열 번을 갈아봐야 도입소 쳐서 걸머진 축협빚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농자금에 어디 어림턱이나 하고
누님께 부칠 쌀 한 말이나 남저지 있으려나 모르지만
그래도 농부 사는 일이라 빈 논 그냥 묵혀둘 순 없었소
…
어머니 아버지 한평생 허기를 끄시던 두렁마다
이 저녁 저렇게 맑은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에 젖은 우북한 풀들 달빛 받아 더욱 뒤척이고
심어놓은 어린 모는 더욱 잔 바람에 흔들거리니
…
내일은 또 윗뜸 형순양반에게 얻어놓은 여시골 묵정밭이라도 일구어
이모작 참깨씨라도 뿌려볼 셈이니
아버지 벌떡 일어서시며 이제 그만 내려가자는 말씀도 저렇듯 청청한 저녁
어느새 달빛은 희망처럼 부풀어 우리의 지친 귀가길을 환히 밝히오 누님

말 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다**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환경부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더 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사십시오.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삶을 바라보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헛됨과 거짓됨을 꾸짖으며 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환경칼럼 ■

에코백(Eco-bag)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있나요?

최근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로 인해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과도한 일회용품 소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1위로, 2016년 기준 1인당 98.2kg을 사용했습니다. 마구 쓰고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이 썩어 없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매년 수백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 "고래와 바다사자의 끔찍한 죽음 - 배속 가득 플라스틱 봉투가 들어차 생명을 잃어버린 고래와 폐그물에 목이 걸려 깊은 상처를 입은 바다사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활습관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에서는 주일 예배 후 쌓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버려진 쓰레기를 분석했습니다. 지하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과 화장실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을 2주간 살펴보았는데, 각종 비닐봉지 뿐 아니라 종이컵과 물티슈가 가장 많았습니다. 비록 바다에 떠도는 플라스틱을 당장 수거하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마침 청파교회 설립 110주년을 기념하여 에코백을 나눠 드렸는데, 환경 주일을 맞아 에코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1. 비닐봉지나 쇼핑백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해주세요

감리교 농도생협이 운영하는 청파교회 지하의 생협을 많은 성도님이 애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재활용해 왔으나, 이번 기회에 구매한 생협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를 에코백 안에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요?

2.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해주세요

식당 내부에서는 공용 물컵이 있어 관리(세척과 보관)가 잘 되고 있지만, 화장실 외부의 정수기는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종이컵이 쓰레기통에 쌓여 있습니다. 공용 컵을 보관하고 세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회용 종이컵을 두고는 있지만, 재활용되지 못하는 젖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여 일회용 종이컵 쓰레기를 줄이면 어떨까요?

3. 일회용 위생품 대신 손수건 사용해주세요

주일 2부 예배가 끝나면 전교인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식탁에 떨어진 잔반을 처리하기 위해 휴지나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휴지 및 물티슈에는 쉽게 보관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화학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해진 식탁은 정수기 위에 놓인 행주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얼굴에 묻은 음식은 에코백 안의 손수건을 사용하시면 개인위생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요?

청파교회 환경부

Ref.1 (QR 코드 접속해 보세요: 끔찍하게 죽은 고래와 바다사자, 인간이 무슨 짓 한 건가)

Ref.2 (QR 코드 접속해 보세요: 태국서 구조된 뒤 죽은 돌고래 뱃속에 비닐봉지 80여 개)